

'理·事' 경비 불교발전 큰 족적

열반계

來不入死關(내불입사관) 올 때도 죽음의 관문에 들어오지 않았고
去不出死關(거부출사관) 갈 때도 죽음의 관문을 벗어나지 않았도다.
天地是夢國(천지시몽국) 천지는 꿈꾸는 집이아니
但憶夢中人(단성몽중인)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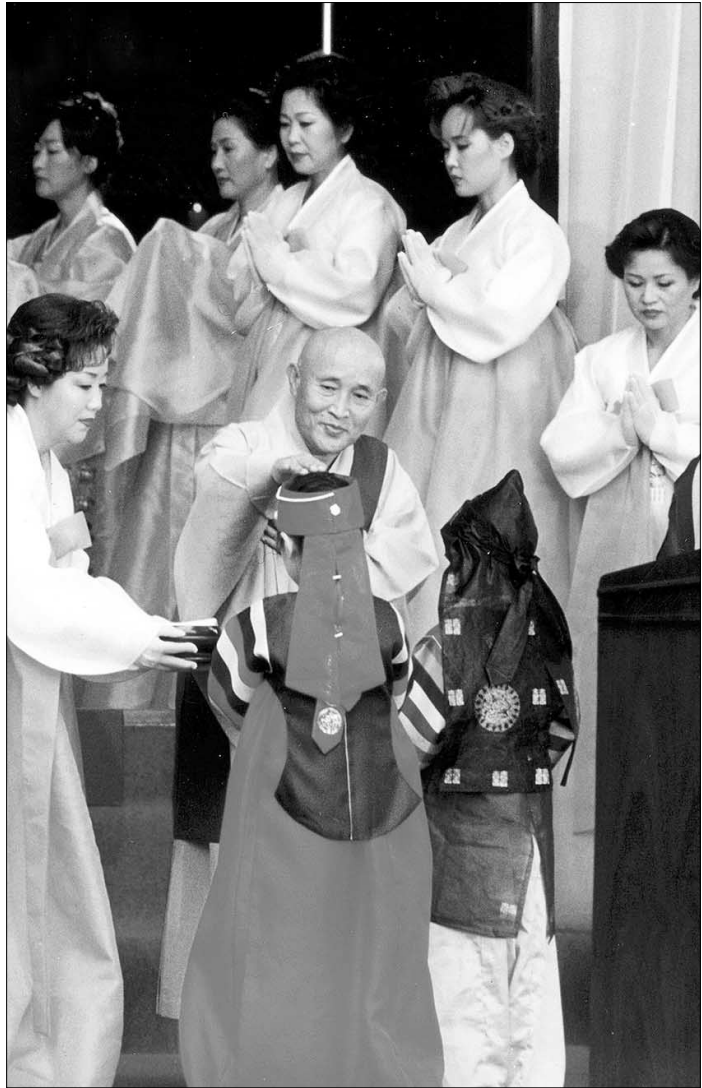
11월 18일 원적(圓寂)에 든 정대 스님은 수행(修行)과 행정력(事判)을 겸비해 조계종은 물론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62년 스물여섯의 나이로 출가, 동산, 효봉, 춘성 스님 등을 찾아 가르침을 받고 스승 전강 스님으로부터 받은 '판처생모(板齒生毛, 이빨에 털이 난 도리)' 화두를 터파했다.

18일 원적한 정대 스님 행장

1973년 사회국장으로서 첫발을 내딛은 이래 두 차례의 사회부장, 네 차례의 재무부장(이상 70년대), 두 차례의 총무부장(80년대)을 거쳐 99년엔 총무행정의 최고 수반인 총무원장 자리에 올랐고, 1975년 제4대 중앙종회 의원으로 피선된 이후 8번을 역임하며 중앙종회 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올해 초에는 총무원장 4년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두고 물러나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재 양성에도 뜻을 두다 열반에 들었다. 30여 년 간 중앙 총무행정 분야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스님은 역대 어느 총무원장보다도 뛰어난 행정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종단의 안정과 증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9년 11월 총무원장에 당선된 스님은 종단의 혼란을 수습하고 화합을 이뤄냈으며, 중앙승가대학사 김포 이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굵직한 불사들을 마무리 지은 것을 최대 업적으로 드는 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없다.

서도 일찍 홀로 된 어머니를 20여년간 절에서 모시고 살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효심이 남달랐다. 지난해에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일에 나서기도 했다.

스님을 가까이서 모신 상좌스님들에게는 "상좌들한테는 칼 같으면 서도 신도들한테는 보살로 통할 정도로 대화를 베풀기를 좋아하신 분"이었다. 성호 스님(용인 용덕사 주지)은 "하도 혼나고 있다"며 "김장할 때 배추 몇 포기에는 고춧가루가 몇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어린 불자들에게 마정수기를 하고 있는 정대 스님.

특유 행정·친화력 바탕 종단 증흥에 기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등 굵직한 숙원불사 마무리

모친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장학사업

군 필요한 지, 사소한 것까지 꿰고 계산 정도로 철저하신 분"이라고 전했다. 성무 스님(수원 용화사 주지)은 "수행이든 행정이든 어느 것 하나를 하던 끝까지 목숨을 던지셨던 분"이라며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자비로움을 잃지 않으셨고, 서로가 다 함께 좋은 길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분이었다"고 말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스님의 인품 탓인지 입적 이후 법구가 모셔진 출가본사 유증사에는 교계 의원·종진 스님, 신도들 외에도 각계에서 조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부 수석에 대신 보내 주모의 뜻을 전했다.

으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 박순용 전 검찰총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 평소 스님과 인연이 깊던 정·관계 인사들이 찾아 안타까움에 말을 잊지 못했다. 일본 불교계에서도 조문단을 보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buddhanews.com에 정대 스님·청화 스님 입적 관련 뉴스 스페셜

어린이법회 年 11% 감소...존폐위기

대불어, 2만2천여 사찰대상 조사

어린이법회가 연간 11%의 감소율을 보이며 존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가 포교원의 후원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천여 사찰의 어린이법회현황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법회 참가 학생 수가 전국 초등학교 400여만 명의 0.3%에도 못 미치는 10,1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도 전국어린이법회현황조사대불어 자체

참가 어린이 10,173명
전국 초등학교 학생의 0.3%

증장기적 정책 수립
포교프로그램 개발 시급

조사 결과인 11,937명에 비해 11%나 감소할 수치이다. 불교계 어린이포교담당자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10년 안에 어린이법회가 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없어진 어린이법회 수가 6곳에 달하며, 경기도 역시 44곳에서 39곳으로 5곳이나 줄었다. 전국 2천여 사찰 중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305곳에 불과하다.

종단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전국의 어린이법회현황에 대한 정확한 연도별 추이 변화는 불가하다. 하지만 대불어 자체 조사에

	2002년 대불어 자체조사		2003년 포교원·대불어 공동조사	
	사찰수	어린이수	사찰수	어린이수
서울	57	2,185	62	1,995
부산	37	932	31	802
대구	14	465	10	410
인천	7	260	4	160
광주	5	160	7	220
대전	11	460	12	470
울산	7	305	7	230
강원	16	515	13	321
경기	44	1,570	39	1,500
경남	38	2,160	40	1,425
경북	33	940	30	975
전남	14	440	11	320
전북	8	250	7	250
제주	9	330	8	410
충남	17	518	11	335
충북	12	437	13	350
계	329	11,927	305	10,173

따르면 부산지역 내 어린이법회들은 10년 단위로 절반가량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비단 부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및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불교기관 및 단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지역이 이렇다면 다른 지역은 실패를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대불어 이수환 사무국장은 "종단을 비롯한 각 사찰들이 어린이포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증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어린이법회 개설과 포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불교기반으로 새 이미지 창출하자

거대조직 이끌 역동적에너지 부족

20일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 열려

'동국대 발전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있는가?'

동국대의 현재를 해부해보는 난상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11월 20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린 '일류 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이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건학 100주년을 900일 앞둔 시점에서 우리들은 그대로 돌아보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했다.

오국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먼저 불을 지폈다. 오 교수는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국대는 불교학과 한국학 분야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대학이었다. 지금은 그

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70년대의 낙하산식 인사와 그로 인한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봉현 교수(동국대 광고학과)가 서울지역 고등생과 학부모, 동국대 재학생, 동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국대 이미지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동국대를 지원가능 대학으로 고려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75%, 학부모의 80%가 '아니'라고 답했다. 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자부심도 낮아 71%와 68%가 '옳다고 싶

다'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대에 동국대를 다녔다는 문병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는 "문제는 다 알고 있고, 방향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며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며 거대한 불교자원을 사회적으로 선용하는 제1의 통로가 동국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나온 얘기는 보다 직접적이었다. 70년대 학번인 김택근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은 "동국대를 지배하는 것은 약간의 패배의식이고,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했고, 역시 동문인 남산 불교방송 사회문화부장은 "투자가 적고,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 주무기가 없다는 것이 동국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2004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 통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불교학과 (교육학 학위가능)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 통선 80명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가능
	4년	■ 통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학위수여 가능)	2년	■ 통선 80명 ■ 주간 30명 ■ 야간 3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4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 야간 30명	· 반명함판 사진 5매	

- 1989. 7. 학원설립공고
-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 1991. 교육부 인준 고등학교 인준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 199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대학 30명 합격
-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남경중의대학 37명 합격
- 2003. 9. 남경 중의대학 41명 합격

- 진과 중국학위 가능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외대), 효장 사범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3년 12월 8일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인 소인 유효)

· 본교 교과과: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hwade.com
E-mail: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과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의과대학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10매, 주민등록등본
사범대	3학년 편입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시험 2005년 3월 예정(국회법통과)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발
-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 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전원 입소 ▶ 군입대 연기가능(6년)
-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3년 12월 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 中國 南京市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팩스: 25-632-2539
한국상담 안내처: 삼화불교대
전화: 02-511-2026~8 팩스: 02-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남경중의대 입학가능, 남경사범대 입학가능

■ 문의처
☎ 135-887-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1080
FAX: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성지 고등 불 교 학교